

아오 신사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마쓰바라 6 개 신사 순례지의 하나.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신다. 신사의 전승에 따르면 헤이안시대 전반 미치자네 공이 규슈 다자이후로 좌천될 당시 도묘지 절(후지이데라시)에 있던 숙모 가쿠주 비구니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교토에서 나니와를 거쳐 아오 지역을 지나다 이곳에서 쉬었다고 하여 이 신사가 건립되었다고 전해진다.

아오의 지명은 헤이안시대 초두, 51 대 헤이제이 천황의 왕자였던 아보 친왕이 이 지역에 거주했다는 전승에서 붙여졌다. 6 대 시선(詩仙) 가운데 한 명으로도 유명한 아리와라노 나리히라는 친왕의 5 남이다. 1679 년에 편찬된 『가와치 가가미 명소기』에는 집들이 처마를 맞대고 뽀뽀하게 늘어서 있는 아오무라의 촌락과 친왕이 농민을 위해 땅을 파 관개용으로 정비했다는 신노이케 인공연못(지고가이케 연못이라고도 한다. 가이즈미이케 연못 남쪽의 나가오 가도변에 있었지만 현재는 매립되었다) 및 친왕의 묘지라고 구전되고 있는 근처의 가와치 오쓰카야마 고분(니시오쓰카)의 삽화를 볼 수 있다.

본전 오른쪽에는 이쓰쿠시마 신사와 함께 아보 친왕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노 신사가 합사되어 있다. 본전 앞에는 ‘사적 아보 친왕 주거터’ 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참배당에 걸려 있는 ‘阿保神社’ 라 쓰여 있는 편액은 아보 친왕의 자손이라 전해지며 겐지 성을 자칭한 니시아오무라 마을의 야스다 씨가 에도시대 말기에 쓴 글이다. 본전 뒤에 우뚝 서 있는 신목인 녹나무는 높이 16m, 나무 둘레 4m 50cm, 그루터기 둘레 6m 에 달하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거목이다.